**예수 가족의 사귐**

**<마가복음 3장 31-35절>3ㅈ2ㅂ112**

**31 그 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32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33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34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35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지난 목요일이 추석이었는데, 외국에 있으니 별 느낌 없이 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런 명절이 있으니 오랜만에 멀리 있는 가족들과 통화도 하고, 가족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국어사전에 보니까, 가족은 “부부를 중심으로 하여 그로부터 생겨난 아들, 딸, 손자, 손녀 등 가까운 혈육으로 이루어지는 집단 또는 그 구성원”으로 정의됩니다.

보다 확대된 의미로, 같은 조직체에 속하여 있거나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가족’이라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하늘 가족’, ‘하나님의 가족’, 혹은 오늘 설교제목처럼 ‘예수 가족’이라 부르는 것이 바로 이에 해당될 것입니다.

혈연과 혼인으로 형성된 가족이든, 이처럼 믿음과 신뢰로 이루어진 확장된 가족이든, 가족은 사랑과 기쁨의 못자리이기도 하지만, 또한 아픔과 상처의 온상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인간의 삶은 우리가 속한 이 여러 가족들 안에서 성장과 성숙, 치유와 회복, 나눔과 섬김을 체험해가는 과정이라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갑게 맞이하기는커녕 의외의 태도로 엉뚱한 얘기를 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반문하시고, 거기 둘러 앉은 사람들을 보시며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당황스럽게 느껴지시는 분이 계실 줄 압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가족을 의미없게 여기시는 것인가?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인가?

예수님이 지금 왜 이런 모습을 보이시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경위에 대해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일까요?

오늘 본문 앞쪽 마가복음 3장 21절에서 우리는 하나의 힌트를 발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여기서 ‘예수의 친족들’이란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을 포함해서 혈연적으로 예수와 가까운 관계에 있던 사람들을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가 어느날 갑자기 미쳤다고 생각했고, 어떻게든 그를 만류해서 집으로 데려가려 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그들이 실제로 예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입에서 나온 안 좋은 말들을 들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그런 헛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 중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들도 그 일을 실제 목격하고 한 말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들 말에 따르면, 예수는 귀신의 왕이라 불리는 바알세불에 사로잡혔고, 그 힘으로 다른 귀신들을 쫓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 속에서 우리는 사실과 해석을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팩트는 예수님이 귀신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석은,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가 가장 센 귀신에 들려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에 대해 예수님은 어이없어 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내겠느냐? 그렇게 지들끼리 싸우면 걔네 나라가 어디 온전하겠느냐? 걔네들이 스스로 망할 짓을 하고 있단 얘기냐?”

어쨌듯, 당시 종교적으로 나름 권위 있다는 사람들이 그런 해석을 늘어놓으니, 예수의 가족들은 걱정이 되어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예수님 계신 곳을 찾아온 이유는, 아마도 다시금 그를 만류해서 집으로 데려가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자, 이런 배경을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을 다시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지금 당신의 가족들을 반갑게 나가 맞이할 상황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의 상황은 예수님이 미쳤다는 것도 아니고, 그분이 가족들에게 무심하다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이 현재 예수님을 중심으로 형성된 이 새로운 공동체 안에 ‘아직’들어올 준비가 되어있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본문 32절은 이 상황을 아주 인상적으로 묘사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믿고 따라온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주위에 둘러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은 그 무리들 속이 아닌 그들 밖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밖에 가족들이 들으면 몹시 서운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나와 함께 둘러앉아 있는 당신들이 내 가족입니다”

도대체 그것이 어떤 가족이길래, 얼마나 문턱이 높은 공동체이길래,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조차도 바로 거기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입니까?

35절에서 예수님은 이 가족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기준을 분명히 언급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얼마나 모호하고 논쟁의 소지가 많은 표현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중 누가 하나님의 뜻을 다 잘 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그것을 다 잘 행할 수 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말로 종종 자기를 합리화 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 표현은 얼마나 절묘한 표현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말 앞에 “누구든지”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외에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데 필요한 다른 조건이나 기준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란 누구를 말합니까?

요한복음 6장 38-40절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온전히 헌신되어 있었습니다.

그분은 당신 자신의 뜻이 아닌 그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만을 온전히 행하고자 하였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이해한 하나님의 뜻은 누구든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세우신 구원의 조건은 오직 하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을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7장 17-18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순수한 동기와 열망이 있는 사람,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보고 듣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아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그의 순수한 동기와 열망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동일한 동기와 열망에 공명하면서, 마침내 그는 예수를 통해 구원을 얻으라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 중심의 새로운 가족이 형성되는 맥락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13절에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육신의 가족이 인간적인 혈통이나 의지로 묶여진 가족이라면, 이 새로운 차원의 가족은 인종과 민족, 성별과 계층을 초월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묶여지는 가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어떤 사람이 이 예수 가족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높은 기준을 내세워 이를 막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좁고 높아진 마음이 이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뜻을 내세우고 구하는 마음이 언제나 우리를 예수 가족에 속한 삶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이 이 새로운 예수 가족 안에 ‘아직’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이기에 거기 못 들어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육신의 가족임에도 그처럼 인간적인 뜻에만 사로잡혀 있다면 예수님에게서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리하며 마침내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동일한 원리가 예수 가족의 사귐에도 적용됩니다.

예수 가족의 사귐에는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귐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이에 두고 갖는 사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매개없이 다른 형제나 자매를 만나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매개로 하여 다른 형제나 자매를 만나고 대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다른 그리스도인과의 관계 속에서 실망하거나 낙심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생활에서 별로 유쾌하지 못한 체험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우리가 예수 가족의 사귐에 대해 뭔가 중요한 것을 배우기 위한 필수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독일의 목사이자 신학자 디트리히 본회퍼는 그의 책 <신도의 공동생활>에서 이에 대해 매우 유익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그리스도인들간의 사귐은 우리가 실현해야 하는 이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현실을 함께 기억하고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간의 만남과 교제는 이상과 이상의 만남이 아니라 현실과 현실의 만남이라는 얘깁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자기 나름의 어떤 이상적인 바람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인의 사귐 속으로 들어옵니다.

상대방이 이런 사람 혹은 저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식으로 그를 내 나름의 이상과 바람을 따라 빚어내려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이런 식의 생각과 태도가 그리스도인의 참다운 사귐을 가로막는다고 본회퍼 목사는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사귐보다 사귐에 대한 자기의 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그가 아무리 정직하고 진지하고 희생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 그리스도인의 사귐을 파괴하는 사람이 되고 말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사귐을 이처럼 꿈으로 그려 보는 사람은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이나 자기 자신에게 자기의 꿈을 이루자고 요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요구하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의 사귐 속에 들어가서 자신의 법을 세우고는 그것을 따라 형제를 판단하고, 그로 인해 스스로 힘들어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의 꿈이 부서지면 사귐도 깨어진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사귐의 기초는 이와 같은 인간적인 이상이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놓으신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각 사람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도록 묶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공유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이 현실에 근거해서 우리는 요구하는 자로서가 아니라 감사하며 받는 자의 모습으로 예수 가족의 사귐 속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 자신과 상대방을 위해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해주시지 않은 것을 가지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그리스도인과의 사귐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한다면, 그는 이 모두가 자기가 바라는 꿈 때문이 아닌지 스스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내 형제자매를 위해 무언가를 하려고 하기 훨씬 전에, 이미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 결정적인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고후5:16)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롬15:7)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내 형제자매 사이에 그리스도께서 서 계심을 잊지 맙시다!

언제나 이 그리스도를 통해 내 형제자매를 바라보고 대합시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그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피흘려 사랑하신 사람입니다.

또한 우리들의 사귐 속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심을 잊지 맙시다!

비록 허술하고 불편한 부분이 있어도 이 공동체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한 몸으로 묶어주신 가족입니다.

내 뜻을 이루기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는 순수한 동기와 열망으로 언제나 이 예수 가족의 사귐 속에 겸손한 순종의 자세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예수님의 가족으로 불러주시고, 한 몸으로 묶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계심을 기억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계심을 늘 기억하고**

**겸손한 순종으로 예수 가족의 사귐을 이루기 원하는**

**꼬빌리시교회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있는 모든 예수 가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